

# 곡성군, 토란가공품개발연구사업 평가회 개최

### 토란작목반·토란가공업체·청년농업인 등 17명 참여 저장성·가공성 개선 목표...밀키트 토란 수제비 등 계획

곡성군이 지난 27일 식품 소비 트렌드 반영 토란 간편식 가공품 개발 다양화 연구 사업(이하 '토란연구사업') 중간평가회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토란연구사업은 2022년도 전라남도 1사군 1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번 평가회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개발 계획과 실용화 기술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토란작목반과 토란가공업체, 청년농업인 등 17여 명이 참석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토란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역으로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가공품과 가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즉시 지역 농가나 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곡성군은 토질이 기름지며 일조량이 많아

토란재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대 토란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토란은 생산 시기와 저장 방법이 한정적이고, 요리법도 다양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토란의 저장성과 가공성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토란을 매시드(토란의 아린맛을 제거하여 삶아 으갠상태) 형태로 가공 저장해 토란 앙금떡, 토란 필링 쿠키 등 디저트류 가공 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토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 레시피 북을 만들기도 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간편식 형태의 밀키트 토란 수제비 등을 개발해 소비자 반응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는 지역 내 토란 재배 농가와 업체 등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 증진에도



협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죽곡토란작목반장 A씨는 "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토란 가공품과 토란 간편 레시피를 활용해 토란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곡성에서만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토란 디저트류와 가공 식품 등을 적극 개발해 '곡성'하면 '토란'이 바로 생각 날 수 있도록 토란 가공 육성에 더욱 힘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2차 주민 좌담회 오늘 개최

나주시는 29일 오후 7시부터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좌담회 '談場'(담장)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은 이번 좌담회는 '문화재생과 지역상생'이라는 주제로 옛 나주극장 뒤편 나주신협본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좌담회는 김양순 협동조합생안사람들 대표를 초청해 주민과 나주극장 문화재생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된다.

1부는 김양순 대표의 '문화재생과 지역상생' 발제를, 2부에서는 좌담회에 초청된 시민 10인과 현장 참여자 간 옛 나주극장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재생사업은 보존 가치가 높은 유휴공간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사업에 선정돼 옛 나주극장이 가진 역사, 장소적 가치를 복원하고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주극장을 근대 문화·예술·생활역사를 영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주극장 문화재생 좌담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나주극장문화재생사업단(☎061-334-2122)으로 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의 압화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특별전시

구례군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제22회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압화 작품을 특별전시한다고 밝혔다. 압화 특별전시는 산청 한방약초축제장 한방향노화관에서 볼 수 있다.

2006년 수상작인 '바람이 머무는 곳(심은경작)'부터 2019년 수상작인 '아름다운초대(이현숙작)'까지 다양한 역대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들을 전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압화특별전시를 통해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압화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야생화와 압화의 본고장 구례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군 여행 가고 숙박비 할인 받자"

### 요금 따라 2~4만 원 차등 할인...12월 11일까지 이벤트 진행

장성군이 '남도 숙박할인 빅(big) 이벤트'를 운영한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이용 방법은 이렇다. 먼저, 타지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참여 숙박업소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다.

숙박 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할인이나 법인 회사 제휴 할인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이후, 여행 당일 타지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신청서와 함께 업소에 제출하면 할인받은 금액으로 숙박료를 결제할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숙박비에 따라 다르다.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2만 원이 각각 할인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가을 단풍 명소 백양사, 축령산 편백숲 등지에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벤트 운영 기간인 12월 11일 안에 꼭 참여해 혜택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벤트에 참여할 숙박업소도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매년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하세요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년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 8. 25.)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장치부착 비용의 약 90%며 10%는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대나무 가치 살려 탄소중립 앞장선다

### 담양군 이송진 박사, 한국임업진흥원 요청으로 캄보디아 대나무 조림 기술 자문



담양군은 농업기술센터 이송진 박사가 한국임업진흥원 요청으로 캄보디아 대나무 조림을

위해 기술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0%가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REDD+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도 나무 심기를 포함한 REDD+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생계형 산림 파괴 행위 때문에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캄보디아 정부 요청으로 캄보디아 황폐산림 복원과 농촌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나무 분야의 전문가인 이송진

박사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지역 대나무 생태, 식재에 필요한 토양, 식재 기술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문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협력사업을 계기로 캄보디아와 담양군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축용 자재, 바닥재, 바이오매스 원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나무 조직배양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담양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대나무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대나무 산업 시장 규모는 688억 달러(UN FAO 자료 인용)로 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대나무는 산림 훼손 없이 간벌이 가능하고 토지 비옥화와 홍수 예방 효과,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 기후변화 대응식물로 각광받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